

일상의 화법과 파격의 진실

최영미 시집 《돼지들에게》

글_홍용희(문학평론가)



오늘날 우리 시의 주요 독자층은 누구일까? 이러한 물음 앞에는 통상적으로 여고생, 문창과 및 국문과 대학생, 주부 등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특히 근자에 들어 시집을 읽는 여고생, 대학생, 주부들 역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체로

1,000~2,000부 내외로 간행되는 시집에 대해 주요 소비층의 동심원을 이렇게 넓게 잡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주요 독자들은 누구일까? 뜻밖에도 바로 시인 자신들이다. 전국에 걸쳐 모여 명을 상회한다고 하는 시인들이 시에 대한 미적 향유를 누리는 주요 소비층인 것이다. 150여 종에 이른다는 문예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인들이 기실은 우리 시의 중심 독자층인 것이다. 시 작품의 생산 주체가 동시에 주요 수용 주체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 유통 구조는 이른바 업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전근대적인 물물교환의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집의 판매부수가 만부 단위를 뛰어넘어, 10만부 혹은 백만부가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 시집이란 시의 창작 주체이기도 한 수용자 층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된 경우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시들이 시 창작 업자들끼리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반 대중들의 구매욕을 끌어 낼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영미의 근작 시집 《돼지들에게》를 염두 해두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른바 순수 정통임을 자처하는 시인일수록 많이 팔리는 시집에 대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시의 경우는 유독 다른 예술 분야나 장르 보다 정통 혈족의 성골 의식이 크고 높다. 그러나 어느 시인들 자신의 시집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독자가 많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독자가 많은 시인을 경멸하는 이 역설적인 이중성은 어

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시 장르 자체의 속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화법은 생래적으로 대중들의 일상적 화법과는 변별된다. 예를 들면, 대화적 상상력의 개입이 가능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사랑이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주관적 자아의 정서적 구성성과 개별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의 경우와도 다른 고유한 자신의 사랑을 표백해야 한다. 다시 말해, 100쌍의 신혼부부가 모두 첫날밤에 사랑을 운위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의 성격, 색채, 유형, 향기, 깊이 등은 제각기 너무도 다르다. 그러나 일반화의 속성을 지닌 '사랑'이란 말은 서로 다른 그 차이의 층위를 일괄적으로 무시하는 비동일성의 동일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사랑의 고유성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사랑이란 말을 피하게 된다. 시인이 복잡한 비유나 언어 문법의 절취, 도치, 재편 등의 작업에 매달리는 험겨운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시적 언어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말이며, 말하지 않기 위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언어에 익숙한 일반 대중들에게 시가 어렵고 난해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장르적 숙명이다.

따라서 많이 읽히는 시는 단일하고 평이한 일상적 화법과 가까운 특성이 있다. 시적 문법 보다 일상적 문법에 가까울 때 대중성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시집들은 대체로 시적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화법이 일상적 화법과 근친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베스트셀러 시집에 대해 이른바 정통시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물론, 일상적 화법의 시편이라 해서 모두 시적 완성도의 미달인 것은 아니며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상적 화법이 베스트셀러의 시집을 낳는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최영미의 《돼지들에게》의 경우 그녀의 출세작이며 1990년대 베스트셀러의 전설에 해당하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더불어

어 일상적 화법으로 전개되면서 쉽게 읽히는 특징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의 관습적 상상력으로부터의 이탈과 삶의 진실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적 상상력은 대체로 너무 진중하고 상투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시인들은 많지만 그 시적 개성과 상상의 프리즘은 그리 다채롭지 못하다. 이를테면, 시적 상상력이 비록 사회적 금기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절실한 내적 진실을 향해 집중되기보다는 계몽적 당위성과 명분에 경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점은 직접적으로는 무거운 이념의 중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현대사의 굴곡과 연관된 것이며,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제도지기(職道之器(도를 담는 그릇)로서의 글을 중시하는 문사(文士)적 전통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주제론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시, 생태시, 여성 혹은 페미니즘 시 등의 시편들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별 혹은 실연 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시사에서 이별시들은 아직도 1920년대 창작된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계보학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별과 회억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편들의 경우, 지난 시절, 어떤 기억들보다 “입안 가득 고여드는 마지막 섹스의 추억”(최영미, <마지막 섹스의 추억>), <서른, 잔치는 끝났다>이 더욱 강렬하게 지배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별 시편들은 계몽적 당위의 문사적 전통에 지배되면서, 정작 절박한 욕망의 진실을 표백하지 못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서 스스로도 그것이 자신의 내적 진실이라고 자각하지 못했던, 심리적 계기들을 충격적으로 깨워내는 이탈적 진실의 언어는 의외로 큰 심미적 폭발력을 가져온다. 관습적 상상력의 궤도를 벗어남으로써 억압된 심미적 진실을 표출시킬 수 있는 출구를 열어 놓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 삶의 체험을 수평적인 일상적 사고의 층위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부딪히는 외로움, 욕망, 상처, 배반, 실망 등의 과정을 수직적인 형이상학의 높이로 치환시키기 보다는 일상의 눈높이에서 직접적으로 전언하는 것이다. 베스트셀러의 시집들에서는 많은 경우 제목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각이 그대로 투영되는 양상을 노정한다. 최영미의 <돼지들에게> 역시 제목에서부터 “내게 진주를 달라고/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달라고...” 줄라대는 왕성한 식욕(?)의 속물적인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힐난이 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시집에서는 시인의 사적 체험의 대상들이 여과 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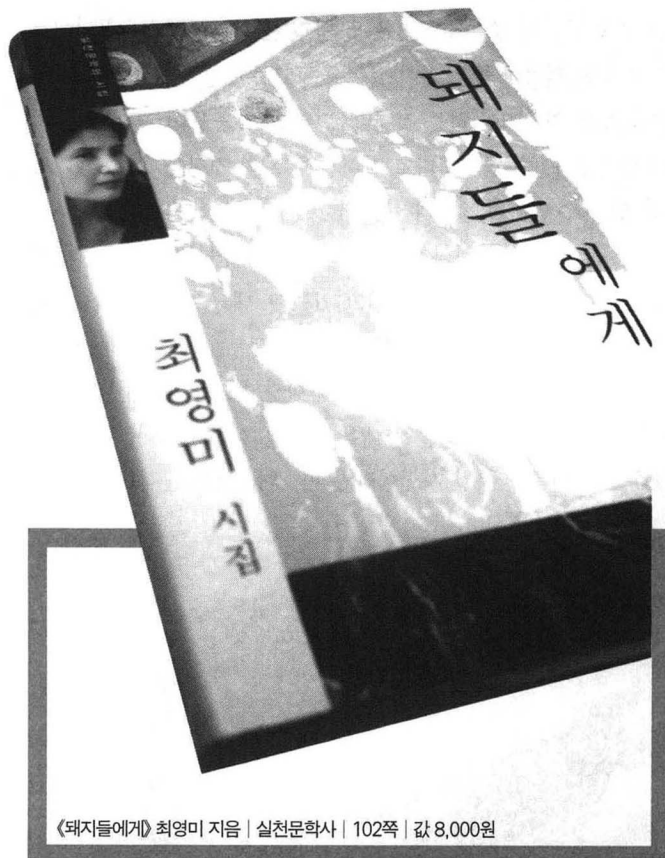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최영미의 시집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정작 새로움에 있기 보다는 우리들의 일상과 너무도 가깝고 낮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말하지 않았던,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표출하지 않았던 감정의 언어들이 오히려 충격적인

새로움을 뿜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시집의 유통구조가 시 창작 업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파급되기 위해서는 너무도 일상적인 문법, 정서, 감각, 사유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베스트셀러시의 필요조건들이 시 창작 방법론의 궁극적인 추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시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일상의 심연과 의미를 발견하고 깨우치는 언어로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시집들은 좋은 시의 가능성은 있으나 좋은 시는 아닌, 아직 아마추어리즘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좋은 시들이 더욱 많이 창작되면서 그 수습적 감염력을 통해 시적 독자층의 문화상향이동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주필**

● 이 글을 쓴 홍용희는

문학평론가로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김지하문학연구> <꽃과 어둠의 산조> <아름다운 결핍의 신화> 등이 있다.



《돼지들에게》 최영미 지음 | 실천문화사 | 102쪽 | 값 8,000원